

## 사물이 조각이 될 때

정서영 개인전 `공기를 두드려서`  
4년만에 국내 전시...영상 등 27점

김슬기 기자 | 입력 : 2020.05.24 17:01:03



사진설명 `피, 살, 뼈`(2019) [사진 제공 = 바라캇 컨템포러리]

이우환은 대지 위에 위치를 점지해 바위를 놓았다. 작가가 영감이 개입하면, 자연과 합일한 하나의 예술이 빚어진다는 것이 `관계항`의 의미였다. 화이트큐브에 정서영 작가(56)는 인공의 스티로폼으로 형태를 빚어 알루미늄을 씌운 바위를 놓았다. 4개의 달을 닮은 덩어리 옆에 작가가 찍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걸고 `오래된 문제`라 이름 붙였다.

정서영이 빚어낸 `관계의 조각`이다. 작가는 "설명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조각을 의도했다. 공간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 형태에 몰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정서영의 `공기를 두드려서` 전이 펼쳐지고 있다. 4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개인전에 작가는 조각, 설치, 영상 등 27점의 작품을 걸었다.

`시간의 조각`도 있다. 이번 전시의 시작은 호두 한 알이었다. 1990년대 그는 유토(油土·기름 섞인 흙)로 호두 조각을 빚었다. 30여년 만의 전시에서 그는 이 호두를 장시간 동안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러자 호두의 형태와 색이 바뀌고, 빛이 스며들고, 소리가 침입하는 2채널 영상 `세계`로 완성됐다. 영상으로 포박된 호두는 관습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깨고, 낯선 방식으로 변형된다.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인 피(blood), 살(flesh), 뼈(bone)를 글자로 쓴 나무로 된 조각 `피, 살, 뼈`와 각기 다른 의자 셋 위에 유리를 올린 `테이블 A`도 있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합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의 비조각적 재료를 조각적 상태로 만드는 건 작가의 적극적 개입이다. 서로 다른 낯선 사물들의 조합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의미가 빚어진다. 이때가 `사물이 조각이 되는 비범한 순간`이다.

`언어의 조각`도 있다. "우주로 날아갈 때는 코를 빼 놓고 간다." A4 크기의 얇은 종이 같은 세라믹 위에 유약으로 글을 새겨 구웠다. 텍스트 드로잉은 2008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괴물의 지도, 15분` 시리즈 이후 지속적으로 해온 시도다. 작가는 "누구나 쓰는 한국어를 쓰는 방법을 다시 엮고 자르고 붙여놓고 싶었다. 서로 상관없는 말이 부딪혀서 독특한 순간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유진상 계원예대 융합예술과 교수는 "정서영의 조각이 젊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이유는 평범하고 단순해보이는 사물의 새로운 면을 작가가 끄집어내는 힘 때문이다. 천편일률화된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기는 어려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조각을 주도해온 정 작가는 서울대 조소과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활동하다 귀국했다.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과 2008년 광주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전시는 7월 5일까지 열리며,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김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